

하상주보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2022년 9월 11일
제1913호

주 임 신 부 : 김태진 베네딕토

보좌신부 : 이태섭 요한사도

사 도 회 장 : 강세원 바오로

연령 회장 : 홍익훈 요셉 (703 966 8206)

사 무 실 : 703 968 3010

팩 스 : 703 968 3013

주 소 : 4712 Rippling Pond Drive, Fairfax, VA 22033

이 메 일 : sthasang@gmail.com

감사와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루카 22,19)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아흔 아홉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

(루카 15,7)



〈돌아온 탕자〉, 바르톨로메 에스테반 무리요

연중 제24주일 (다해)

제 1 독 서 탈출 32,7-11.13-14 | 주님께서는 내리겠다고 하신 재앙을 거두셨다.

화 답 송 시편 51(50) | ◎ 일어나 아버지께 가리라.

제 2 독 서 1티모 1,12-17 |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하느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기셨네.◎

복 음 루카 15,1-32 <또는 루카 15,1-10> | 하늘에서는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

하늘에서는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

- 그때에 ¹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들고 있었다.
- ² 그러자 바리사이들과 율법 학자들이,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 ³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 ⁴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 백 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한 마리를 잃으면, 아흔아홉 마리를 광야에 놓아둔 채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뒤쫓아 가지 않느냐?
- ⁵ 그러다가 양을 찾으면 기뻐하며 어깨에 메고
- ⁶ 집으로 가서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한다.
- ⁷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아흔아홉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
- ⁸ 또 어떤 부인이 은전 열 닢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닢을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 안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느냐?
- ⁹ 그러다가 그것을 찾으면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은전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한다.
- ¹⁰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하느님의 천사들이 기뻐한다.”

복음 묵상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뒤 하느님 앞에서 느낀 첫 감정은 두려움과 수치심이었습니다(창세 3,9-10 참조). 이렇게 죄는 인간이 거룩함을 잃어 하느님과 이루는 일치의 관계를 끊기게 하고, 다시 그분께 선뜻 다가가기를 주저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루카 복음사가는 잃었다가 되찾은 ‘양’과 ‘은전’과 ‘아들’에 관한 세 개의 비유들을 연이어 배치하면서(루카 15,1-7.8-10.11-32 참조), 죄인이 회개하여 당신께 돌아오는 일을 하느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강조합니다.

제1독서는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면서 하느님을 배반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겼을 때, 그분의 용서를 얻고자 모세의 애원과 중개가 필요하였음을 기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알려 주신 하느님께서는 용서에 소극적이신 분이 아니라 길 잃은 죄인을 먼저 찾아 나서시는 분으로, 착한 목자요 소중한 은전의 주인이시며 탕자를 끝까지 사랑하는 아버지입니다. 제2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지난날 자신의 잘못을 떠올리면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고 박해하는 죄인이었다는 사실이 오히려 하느님께서 자비를 베푸신 이유였다고 증언합니다. 그렇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매번 자신의 부당함에도 주저앉지 않고 곧바로 하느님께 돌아갈 수 있는 까닭은, 다름 아닌 그분의 한없이 자비로우신 본성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비유 속 잃어버린 양과 동전 그리고 탕자가 바로 자신임을 알지 못하는 바리사이와 율법 학자가 아니라, 자신이 죄인임을 알면서도 용기 내어 예수님의 식탁에 모여든 세리와 죄인의 마음을 닦아야겠습니다. 당신께로 발걸음을 돌리는 죄인을 가장 사랑하시는 하느님의 품으로, 다시 되돌아갑시다.

<강수원 베드로 신부>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하느님의 천사들이 기뻐한다.

루카 15,10



묵상

예수님은 죄인들을 더 사랑하십니다



〈돌아온 탕자(부분), 바르톨로메 에스테반 무리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우리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첫번째 조건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러하고 저러한
이유로 죄인입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도
내치지 않으십니다.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 일부는

제게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신부님, 저는 너무 큰 죄인이기 때문에 내쳐질 것이 확실합니다.
저는 끔찍한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살면서 그런 일들을 너무 많이 저질렀습니다.”
아니요, 당신은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총애를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죄인들을 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당신을 받아들이기를 기다리십니다.
당신을 용서하기를 기다리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당신을 기다리십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오, 하느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루카 18.13



〈바오로딸 콘텐츠〉

9월 14일 성 십자가 현양 축일

‘성 십자가 현양 축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속죄하시려고 자신 십자가를 묵상하고 경배하는 날이다. 전승에 따르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 성녀의 노력으로 찾아내게 되었다. 황제는 이를 기념하고자 335년 무렵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무덤 곁에 성전을 지어 봉헌하였다. 그 뒤로 십자가 경배는 널리 전파되었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9월 14일로 이 축일이 고정되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 나무에서 인류 구원을 이룩하시어
죽음이 시작된 거기에서 생명이 솟아나고
나무에서 패배한 인간을 나무에서
승리하게 하셨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사들이 주님의
위엄을 찬미하고
주품천사들이 흠송하며
권품천사들이 두려워하고
하늘 위 하늘의 능품천사들과
복된 세라핌이
다 함께 예배하며 환호하오니
저희도 그들과 소리를 모아
삼가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주님의 축일과 신비 감사송 :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승리〉

1 2차 헌금

- 이번 주일은 Religious Education을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신자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단체부 회의

- 일시 : 9월 11일(일) 오전 11:30 (B-3,4)

3 꼬미시움 월례회의

- 일시 : 9월 11일(일) 오후 1시 (B-3,4)

4 주일학교 개강 미사

- 일시 : 9월 11일(일) 오후 2시

5 효도 한마당 잔치

- 일시 : 9월 18일(일) 오전 11:30 (친교실)
-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어르신들(안나회, 하상회,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해 정성껏 효도 한마당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푸짐한 선물과 장기자랑 등이 준비되어 있으니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당에서 시니어 아파트로 가는 버스 시간은 오후 2:15입니다.)

6 꾸리아 월례회의

- 일시 : 9월 18일(일) 오전 11:30 (하상관 #4,5)

7 CYO 피아노 반주/성가/오케스트라 새 단원 모집

- 학생 미사에서 함께 노래와 반주로 봉사할 학생들을 모집합니다.
- 대상 학년 : 6th grade(Singer)/ 7th-12th(Singer-Instrument)
- 오디션 : 9월 25일(일) 오후 4시 주일학교 수업 후 (하상관 지하 #7)
- 문의 : 조 스테파니아 (703) 725-3167

8 하상 성인학교 2022년 가을학기 안내

- 일정 : 9월 13일(화) - 12월 9일(금)
- 등록 : 9월 11일(일) 오전 8시, 10시 미사 후 친교실
- 개강식 : 9월 13일(화) 오전 9:20 (하상관 #110)
- 등록금 : \$60 (점심 없음)
- 안내서 및 신청서 : 성당 입구 주보대에 있습니다.
- 기타 세부 사항은 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김명희 율리야나 교장 (703) 217-2775

9 주일학교 교리교사 모집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키워줄 교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문의 : 윤정 보일 CCD 교감 (703) 371-3589
구아름 CYO 교감 (703) 599-8869

10 결혼 회년 미사 안내

결혼 25주년(1997년), 50주년(1972년)이신 분들을 위해 교구에서는 기념 미사를 봉헌합니다.

- 일시 : 10월 16일(일) 오후 3시, 알링턴 주교좌성당 (주교님 집전)
- 신청 :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10월 3일(월)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세요.

11 중환자를 위한 피정(알링턴 교구 자선단체 주최)

- 일시 : 9월 30일(금) - 10월 2일(일)
- 장소 : San Damiano Spiritual Life Center (125 Old Kitchen Rd, White Post, VA 22663)
- 가톨릭 자선단체에서 중환자를 위한 피정을 합니다. 환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신부님들, 의사, 간호사, 봉사자들도 함께 합니다.
- 등록 및 문의 : Catholic Charities (703) 841-3830
E-mail : retreat@ccdo.net

12 성 정하상 바오로 성상 건립

- 본당 주보성인인 성 정하상 바오로 성인의 성상을 Fairfax Memorial Park에 세우고자 합니다. 성상 건립을 위해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 약정서 및 납입금은 사무실에 봉헌해 주세요.
- 감사합니다** 성상 건립 납입 금액 : \$ 31,520

13 불우이웃 돕기 5K 걷기/달리기

- 일시 : 10월 22일(토) 오전 8시
- 장소 : Burke Lake Park (Shelter A)
- 신청 : 오전 8시, 10시 미사 전후 성당 친교실/사무실
- 신청비 : 1인 \$15 / 2인 \$25 / 한 가족 \$30(3명)
- 문의 : 복지부장 김 소피아 (703) 314-0905
※ 아침식사로 순두부 백반 제공됩니다.

14 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집시다

- 주일 및 평일에 본당에서 봉사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감사의 마음을 가졌으면 합니다. “수고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 한마디가 봉사자들에게는 힘이 됩니다. 우리를 위해 봉사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사무실에 신청해 주세요 ◇

병자성사, 면담 성사, 사무실·상점 축복, 가정 축복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세요.



변형된 성물과 잘못된 신심에 대한 주의

인터넷쇼핑몰 등을 통해 구입된 성물은 변형되거나 왜곡된 것이 많습니다. 목주와 기적의 메달, 스카폴라 등 제작처가 불분명한 성물 사용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당 홈페이지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22년 9월 4일(연중 제23주일)

주일 헌금	\$ 5,608.00
교무금	\$ 11,875.00
교무금(신용카드)	\$ 6,280.00
감사 헌금	\$ 360.00
2차 헌금	\$ 2,346.00
온라인 봉헌	\$ 2,160.00
합계	\$ 28,629.00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버지니아성 정 바오로 성당 제공

KACM TV 하이라이트

Cox Ch. 30, 830
Fios Ch. 30

9월 15일(목) 오후 5:00-6:00

9월 16일(금) 저녁 8:00-9:00

9월 18일(일) 오전 6:00-7:00

1. 주일 강론

2. 세계 성당을 가다 :

(5) 콜롬비아 메들린 대성당

3. 한국 교회사 : (3) 조선 선교지를 눈앞에 두고

믿음 안에서 함께 해요, 우리

“이번 주에는 성당에서 레지오가 있어요. 그래서 모임에 갈 수 없어요.”
“그 시간에는 미사를 가야 해서 모임은 곤란해요.”
라고 하는 신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레지오는 주에 1회 단원들과 함께 기도를 약속한 날입니다. 주일 미사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라’는 계명을 받드는 일입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요.

교황님의 9월 기도 지향 사형 제도 폐지

인간의 불가침성과 존엄성을 침해하는 사형 제도의 법적 폐지가 모든 나라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미사 시간 안내(Mass Schedule)

주일미사	· 8:00 AM · 10:00 AM(교중미사) · 2:00 PM(학생미사) · 5:00 PM(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주일 미사	· 7:30 PM
월, 목, 토	화, 금, 수
· 6:00 AM	· 7:30 PM · 11:00 AM

